

‘케데헌’ 이재가 들려준 성공보다 값진 삶

태평로

이 위 재

기획부장



‘케데헌(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 주제가 ‘몰든’은 지난주 빌보드 차트에서 3위에 자리했다. 8주 연속 1위 기록이 끝난 뒤 13위까지 밀렸지만 다시 뛰어올랐다. 그 노래를 만들고 부른 이재(34·본명 김은재)가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지난 시간을 돌아봤다.

잘 알려진 대로 그녀는 12년간 유명 연예 기획사(SM엔터테인먼트) 연습생이었다. 연습생은 ‘인턴’이다. 정직원(데뷔)으로 상승하기 위한 준비 단계이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다림의 시간이다. 그녀는 11세부터 23세까지, 빛나야 할 청소년기를 연습실에서 보냈다. 함께 땀 흘리던 또래들은 소녀시대, 사이나, f(x), 레드벨벳 등으로 데뷔해 무대 위로 날아올랐지만, 계속 ‘연습생’으로 남아 있었다. 그 시절을 쓸쓸하게 회고했다. “어린 이재’에게 미안함이 있어요.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게 했으니까요.”

연습생이 되는 것조차 좁은 문이지만, 데뷔는 더 바늘구멍이다. 쏟아지는 아이돌 그룹 중 3년을 버티는 팀은 10%도 되지 않는다. 데뷔한 지 5일 만에 해

체한 아이돌 그룹도 있었다. 데뷔는 도 착점이 아니라 출발선인 셈. 이재는 그 활동주도 밟지 못한 채 성인이 됐다.

“새벽 7시에 연습실에 가서 밤 11시에 나왔어요. 춤 6시간, 노래 6시간 하다가 기절도 했죠.” 노력한다고 곧바로 문이 열리진 않았다.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데뷔 못 하지? 나는 많이 부족한가 봐’ (쭈뼛없이)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면서(아이들은 대부분 10대에 데뷔한다)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 보였는지 연습생 계약조차 종료됐다. 당시 23세. “계약을 끝내고 택시를 타

아이돌 연습생으로 12년 안간힘 데뷔도 못 해보고 계약 해지 눈물 오랜 좌절 딛고 뒤늦게 각광받아 결과보다 과정 자체가 더 큰 의미

고 집에 오는데 눈물이 계속 났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음악이 좋았던 그녀는 작곡으로 눈을 돌렸고 그로부터 10여 년이 흐른 지금 그야말로 글로벌 벵카 스타가 됐다. 그토록 꿈꿨던 가수로서 첫발도 화려하게 내디뎠다. 영광은 하루아침에 주어진 게 아니다. 오랜 시간 눌러 담은 좌절과 희망, 포기하지 않은 마음이 만들어낸 울림이다.

대담하던 사회자가 위로하듯 말했다. “노력은 언제나 빛을 본다.” 왜 그런 말을 건넸는지는 알겠지만, 그 발언

은 절반의 진실이다. ‘노력하면 언제나 보상받는다’는 상투적 충고는 올바른 지 않고 현실을 반영하지도 않는다.

이재가 성공을 얻지 못했더라도, 그녀가 꿈을 붙잡고 살았던 시간은 가치가 있다. 꿈을 실현 여부로 평가되지 않나. 사람에게는 새겨진다. 성공은 반전의 찰나가 아니라,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살아낸 시간의 기록이다. (이재처럼) 끝내 데뷔라는 행운을 손에 넣지 못하고 다른 길을 걷게 된 수많은 연습생도 결코 실패자가 아니다. 그들의 시간 역시 낭비되지 않았다.

미국 메이저리그의 전설적 투수 랜디 존슨은 기대를 받고 프로 생활을 시작했지만 29세까지는 ‘미완성 유망주’에 머물렀다. 스트라이크를 제대로 던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통 투수들은 내리막을 걷는 서른 살이 되어서야 제구가 잡혔고, 이후 최고 투수에게 주는 사이영상을 다섯 번 받았다. 그는 끈질기게 버텼다. 버틴 시간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그 보상이 꼭 찬란한 결과일 필요는 없다. 시간의 굴 속애 그 노력의 흔적이 남아 있는 한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한 사람 인생을 ‘도착점’으로 요약하려는 습성은 버리자. 어떤 사람은 빠르게 도착하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간다. 중요한 건 도착이 아니라 계속 걷는 일이다. 삶을 완성하는 건 ‘무대 위’가 아니라 ‘무대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다.



토머스 게인즈버러, 블루 보이, 1770년쯤, 캔버스에 유채, 177.8×112.1cm,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버러노, 헌팅턴 미술관 소장.

귀족들은 고가의 예술품과 부동산을 소유하고도 상속세를 내거나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할 현금은 없었다. 그때 신대륙에서 막대한 부를 쌓은 미국 재벌들은 그들에게 자금을 지불하고 유럽의 역사와 문화적 자부심을 사들였다.

1922년, 영국을 떠나기 직전, 고별전에 나선 ‘블루 보이’를 보기 위해 9만명이 모였다. 당시 미술관 관장은 그림을 뒷면에 ‘Au revoir(또 만나자)’라고 연필로 써뒀다. 그러나 ‘블루 보이’가 헌팅턴 미술관을 떠나 영국 땅을 밟은 건 그 후로 100년이 지난 2022년, 단 한 번뿐이었다.

포스트백 교수·서양미술사

社 說 민 특검 주식 이어 검사 처신 문제, 만신창이다

김건희 문제를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의 한문학 부장검사가 4년 전 김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과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밝혀졌다. 한 검사는 제보가 특검에 접수될 때까지 이 사실을 밝히지 않고 특검의 해당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다고 한다. 특검 수사와 기소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술자리를 가진 주범은 한때 김 여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펠트인베스트 대표다. 지난 4월 유죄가 확정됐다. 그런데 2021년 한 검사와 이 전 대표 등 5명이 저녁 식사 후 동석자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 갔다고 한다. 이때 한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 2부에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다. 한 검사는 “이종호가 수사 대상자란 사실을 몰랐다”고 했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실사 나중애 알게 됐다고 해도 그 이후엔 김 여사 관련 수사 참여는 피했어야 한다. 그런데 그는 지검 수사에 이어 고검 재수사 때도 참여했고, 특검에선 수사팀장까지 맡았다.

정치 양극화 뒤에 숨은 심각한 의원 윤리 타락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폰으로 딸 결혼식 축의금 내역을 보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다. 이 메시지에는 대기업과 피감 기관 대표들의 이름과 100만원부터 수십 만원의 축의금 내역이 담겨 있다. 최 의원은 “축의금을 돌려주기 위해 보좌진에게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국회 상임위원장이 의원 권력이 가장 커진다는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에서 자녀 결혼식을 여는 것 자체가 옳지 않은 일이다. 한 달 전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 결혼식을 여는 문제의 부적절함이 지적됐을 때 결혼식 장소를 바꿔야 했다. 그게 어렵다면 축의금과 화환이라도 받지 않았어야 한다. 그랬다면 이런 논란은 피할 수 있었다. 많은 공직자와 국회의원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나 최 의원은 결혼식 이후에도 자기 모르게 자녀가 국회에 예약을 했다가나 양자역학 공부 때문에 자녀 결혼식을 행할 시간이 없었다는 식으로 납득하기 힘든 해명을 했다. 그러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축의금 내용을 보는 장면이 잡힌 것이다. 최 의원은 해명대로 축의금을 돌려주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해도 국민

이종호 전 대표는 해병 사건과 관련해서도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혐의로 해병 특검의 수사도 받고 있다. 해병 특검은 문제의 한 검사 술자리 사진이 저장된 휴대폰을 확보하고도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중기 특검은 해당 휴대폰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집행하지 못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 과정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민중기 특검을 둘러싼 논란은 이뿐이 아니다. 공무원 강압 수사와 극단적 선택 논란에 이어 민중기 특검 자신이 과거 김 여사와 같은 회사의 주식에 투자했다가 주식 거래 정지 직전에 매각해 1억여 원의 차익을 거둔 사실이 밝혀졌다. 거래 정지 사실을 모르는 소액 주주 7000여 명은 4000억원대의 재산을 날렸다. 회사 대표는 민 특검의 고교·대학 동문이었다. 여기에 검사 술자리 문제까지 더졌다. 이 정도면 특검이 만신창이다. 민 특검은 한 검사 특검 파견을 해제했다. 하지만 국민 시각에서는 한 검사보다 민 특검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이 더 커 보인다.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보좌관에게 자신의 경조사 축의금 정리 같은 사적인 일을 시킨 것은 공사 구분이 없는 갑질에 가깝다. 이미 젊은 층이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축의금 액수도 일반인의 기준을 넘어선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라도 축의금 100만원은 흔치 않다. 최 의원은 일단 930만원을 돌려주고 추후 더 돌려주겠다고 했다. 국회 상임위원장이면 애초에 이런 일을 만들지 말았어야 마땅하다.

최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로 주식 차명 거래를 하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은 상임위원장직을 그만뒀지만 여전히 다른 상임위에서 피감 기관들의 잘못을 추궁하고 있다. 누가 누구를 나무란다는 건가. 희극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요즘 정치권에선 보좌관에게 번기 수리를 시켜도, 상임위 도중 코인 거래를 해도 공천을 받아 재선, 삼선을 한다.

정치가 양극단으로 갈라다 보니 우리 편이 하면 무슨 잘못을 해도 무조건 봐주기 때문에 의원들의 윤리도 범주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다. 피감 기관들을 상대로 호통치고 모멸적 언사를 하는 의원일수록 자신의 윤리 수준은 바닥인 경우가 많다.

이젠 뭐 하는지도 모를 특검을 하나 더 한다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관봉권 피지 분실’과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상설특검에서 수사하도록 결정했다. 이미 현 정권 들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해병 특검’ 등 3개 특검이 가동되고 있다. 여기에 상설특검까지 들어하면 총 4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다.

특검은 정권 비리 사건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특검은 정권을 잃고 죽은 정권을 수사하고 있다. 일반 검찰에 시키면 더 잘할 것이다. 그런데 ‘특검’이 주는 정치적 효과를 노리고 특검만 고집한다.

관봉권 피지 분실은 검찰이 건진법사 전상배씨 자택에서 압수한 현금 통지에서 한국은행 마크가 찍힌 관봉권 피지를 수사관이 분실했다는 것이고, 쿠팡 사건은 쿠팡 자회사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 간부가 수사팀에 무혐의 처분을 압박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이 이 사건을 문건 것이 아니다. 두 사건 다 검찰의 자체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대검 검찰부가 최근 관봉권 사건은 ‘단순 실수’라는 결론을 내리자 법무부가 상설특검 가동

을 결정했다. 사실 관봉권 피지는 있든 없든 수사 본안과 상관없이 없다. 현재 검찰 간부들은 거의 모두 현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못 믿겠다고 한 것이다.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왜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안 해주느냐’는 불만일 것이다.

정말 검찰을 못 믿겠다고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하면 된다. 판검사 비위를 최우선 수사하라고 민주당이 만든 기관이 공수처다. 공수처 수사 사안에 대해 별도의 인력과 예산을 들여 특검을 한다면 공수처는 문을 닫아야 하는 것 아닌가. 특검 남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3대 특검에 파견된 검사만 114명이다. 수원지검 전체 검사 수에 해당하는 인력이 특검에 동원돼 있다. 지난 6월 말 특검 출범 이후 두 달 사이에 전국 검찰청 미제 사건이 2만건가량 늘었다고 한다. 이 와중에 민주당은 3대 특검 수사 기간을 최대 180일까지 30일 더 연장할 수 있게 했고, 파견 검사도 더 늘릴 수 있게 했다. 여기에 검사 5명, 수사관 30명이 동원되는 상설특검을 또 하겠다고 한다. 3대 특검도 이제 잊혀 가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특검이 하나 더 늘어나면 국민 피해만 커질 것이다.

뉴데일리 newdaily.co.kr

한국 좌파정권은 《구들장군》

해외에선 한없이 초라, 한심, 비굴 ... 유독 좌파 대통령들만이

홀대받기 일쑤에 투명인간 취급받아
다자 정상외교에선 쫓겨나는 보릿자루
하다 하다 스스로 레드캣트 까는 촌극까지



▲ 리셉션장에 홀로 외롭게 서있는 문재인인의 모습.

구들장군=찌질하고 비겁한 남자

《구들장군(舊將軍)》이란 말이 있다. 영남 지역 방언이다. 집에서만 큰소리치는 사람을 말한다. “그 사람은 구들장군이야!”라고 하면 부인과 어린 자식에게만 온갖 큰소리 치고 행패 부리는 《찌질하고 비겁한 남자》를 지칭하는 경우가 된다.

좌파정권들을 보면, 《구들장군》이 떠오른다. 국내에서는 온갖 무도한 짓을 서슴지 않다가도, 한국 땅만 벗어나면 한없이 초라하고 한심하고 비굴한 모습이다. 거기에 딱 어울리는 표현이다.

노무현 정권부터 이재명 정권까지 최근 20여 년간 대통령령은 6명.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정권은 좌파,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권은 우파, 또는 비(非)좌파다. 좌파 셋, 비좌파 셋이다.

해외에선 투명인간 ... 국내에선 구들장군

이들이 해외 순방을 하거나 외국 정상들과 만날 때 모습은 대조적이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은 큰 환대를 받았고 외국 정상들과도 활발하게 어울렸다. 외국 정상들은 한국 대통령을 만나려고 적극적으로 다가왔다. 미국 의회나 유엔 총회 연설 때는 많은 이들이 경청하고 박수를 보냈다. 이런 대통령의 모습은 한국인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었다.

반면 3명의 좌파 대통령, 특히 문재인 이재명은 달랐다. 외국을 방문해도 홀대받기 일쑤였고 해외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다. 어울리지 못해 쫓겨나 놓은 보릿자루처럼 뽄뽄히 혼자 서 있는 모습. 대통령 전용

기가 도착해도 비중 있는 인사가 영접 나오지 않고 한국 고위 관료가 준비해 간 카펫을 스스로 까는 촌극. 이제 익숙한 풍경이다.

문재인은 A4 용지 없이는 외국 주요 인사들과 단 5분도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다. 이재명이 트럼프를 만났을 때 보인 노골적인 어부는 한국인들의 낯을 화끈거리게 했다.

여순 반란이 정의로운 행동?

해외에선 한없이 작아지는 문재인 이재명 정권이었지만, 《구들장군》답게 국내에서는 살벌한 폭정과 실정(失政)이 두드러졌다. 거짓과 광기(狂氣)의 시기성 탄핵 정변으로 문재인이 정권을 장악한 뒤 소위 《춧불혁명》과 《적폐청산》을 내세워 얼마나 무도한 짓들을 저질렀는지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온갖 수모를 겪었던 이들의 피맺힌 고통도 결코 잊을 수 없다.

소위 《내란몰이》를 내세운 이재명 정권도 문재인 정권보다 결코 덜하지 않다. 과반수 의석을 무기로 급조된 소위 3대 특검. 《살아있는 권력의 총견(忠犬)》이라는 질타를 받고 있다. 조은석의 소위 《내란 특검》, 민중기의 소위 《김건희 특검》, 이명현의 소위 《채해병 특검》의 무리하기 짝이 없는 수사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정치수사》이자 《과잉수사》다. 민중기 조은석 이명현의 자질·역량·도덕성·좌편향에 대한 논란도 쏟아진다.

이재명 정권은 헌법이 규정한 사법부와 검찰청 구조를 통째로 자신을 입맛에 맞게 변경하려 획책한다. 이재명은 대놓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허무는 짓도 서슴지 않고 있다.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는 최근 성명에서 “여순 반란사건 반국가세력에 동조하는 이재명은 대한민국 대통령 자

격이 없는 만큼 즉각 퇴진하라”고 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재명은 대담하라. 여수-순천 시민 2천여 명 학살, 국군 장교 20명 살해, 경찰서장의 눈을 뽑고, 여경 국말래 정현자 끌고 가 성고문 후 살해! 이것이 《부당한 명령에 맞선 정의로운 행동》인가?”

소름 돋고 으스스하다

이런 정권의 폭주를 방지할 경우 우리가 아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더는 존재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미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마두로 독재와 비슷한 길로 가고 있다. 게다가 분단이라는 특수한 변수까지 존재하기에 베네수엘라보다도 더 끔찍한 비극을 맞을 수도 있다.

지역·세대·계층 갈등도 심각하지만, 그런 수준의 갈등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 자칫하면 대한민국 자체가 무너져 내리고 엄청난 국가적·국민적 참극과 파멸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해야 할 때다.

대한민국 공동체 열차가 지나고 있는 터널 저편의 불빛이 햇빛이 아니라 마주 보고 달려오는 다른 열차의 불빛이라면?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고 으스스하지 않은가.

권순환 객원 칼럼니스트
권순환TV 대표 /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5년 10월 26일 게재 되었습니다.

